

인왕산에서 '별 헤던' 순수 청년, 식민조국의 별이 되다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7>시인 윤동주와 서울 종로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서시’ 중에서)

누구나 한번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리라고 다짐했던 때가 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전제한다. 여기에는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타협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가. 옛 선인들은 ‘염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염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염치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덕목에서 제외되었다. 물질적 풍요가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린 작금에는 염치가 들어설 틈이 없다. 염치가 실종된 시대에 윤동주의 ‘서시’는 ‘죽비’처럼 우리를 향해 준엄히 꾸짖는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윤동주의 ‘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윤동주를 첫손에 꼽는다. 도덕적 삶을 살고자 했던 순결한 의지와 그의 생애 갖든 가없는 슬픔을 사람들은 기억한다.

시인 윤동주(1917~1945). 그는 사슴처럼 순수하고 해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어릴 적 아명이 해환(海煥)이었다. 부친은 “해처럼 빛나게 살라”는 뜻으로 그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흔히 시는 시인을 닮고, 시인은 시를 닮는다는 말이 있다. 작품과 문인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장르가 지닌 고정불변한 특질

이기도 하다. 윤동주의 시속 화자와 시인 윤동주가 동일한 인물로 읽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짐작컨대 한국현대문학 사상 윤동주만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를 쓰고자 했던 시인은 없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는 윤동주문학관이 있다. 문학관은 작고 아담하다. 전체적인 흰색 톤은 시인의 순결한 영혼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터라 산책을 오가는 시민들은 삼삼오오 이곳을 찾는다.

익히 알려진 대로 윤동주 시인의 고향은 만주 북간도다. 그런데 왜 서울 종로구에 문학관이 건립되었을까? 그것은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 문과를 졸업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 윤동주는 대학시절 종로구 누상동의 소설가 김송(1909~1988) 집에서 하숙을 했다. 당시 문우이자 후일 평론가로 문명을 날렸던 정병욱(1922~1982·전 서울대국문과 교수)이 하숙을 함께 했던 친구다.

“윤동주와 정병욱은 아침 식사 전에 인왕산 종턱까지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두 문우는 언덕을 오르며 식민지 조국의 암울한 현실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 우리가 아는 빛나는 시들이 이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한국문학사에서 이곳이 차지하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요.”

윤동주문학관 문화해설사 한경자 씨의 설명이다. 그녀는 ‘별헤는 밤’,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등이 그 즈음에 탄생했다고 덧붙인다. 문학관 산책로를 따라 시인의 언덕에 오르면

저절로 시심이 동할 정도다. 좌로는 북악산이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온다. 뒤로는 인왕산과 창의문(자하문)이 수도 ‘한양’의 위엄을 드러낸다. 여기에 서울 성곽의 흔적까지 곳곳에 남아 있어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할 수 있다.

풍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예에서도 통용되나 보았다. 윤동주는 이 언덕에서 별을 헤며 그리운 얼굴과 시정(詩情)을 떠올렸을 것이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그의 문학에 자리한 이곳의 공간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2년 7월 인왕산 자락에 윤동주문학관을 세웠다. 원래 이곳은 청운수도가암장이 있던 자리다. 느리지는 몰살에 압력을 가해 세차게 흐르도록 견인하는 장치가 바로 가암장이다. 해설사 한경자 씨는 “세상에 지친 나머지 적당한 타협으로 비겁해지는 우리들에게 윤동주 씨는 아름다운 자극을 준다”고 강조한다.

그릴 만도 하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은 이곳에 들려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받는다. 주말이면 1600명의 관람객들이 윤동주의 흔적을 보기 위해 들른다.

동주는 참 순했어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



매년 9월이면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작년에는 추모콘서트, 윤동주시화전 등이 열렸다. 올해는 7월에 개관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축하콘서트와 강연 등을 통해 윤동주 시인이 추구했던 가치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계획이다.

문학관은 모두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전시실은 윤동주의 시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진자료, 친필원고 영인본이 비치돼 있다. 눈에 띄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는 ‘우물’이다. 용정 생가에 방치되어 있던 우물을 시인들이 가져온 것으로, 시 ‘자화상’의 모티브로 추정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으로 시작되는 ‘자화상’은 윤동주의 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2전시실과 3전시실은 가암장 물탱크가 있던 공간을 개조한 곳으로 각기 ‘열린 우물’, ‘닫힌 우물’을 상징한다. 전자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장소성을 부여한다면 후자는 침묵과 사색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문학관을 둘러보면 ‘하늘과 바람과 별’이 깃들기에 최적의 공간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윤동주는 해방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다. 식민지 조국 현실을 아파하며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떠났던 유학의 여정에서 시인은 그렇게 푸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일설에는 강제로 투여된 의문의 주사가 사인이었다고 전해진다.

/서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012년 서울시 종로구 청운수도가암장을 개조해 만든 윤동주문학관에는 순결한 시인의 삶과 문학혼이 오롯이 깃들여 있다.



1층 전시실(위)과 용정 생가에서 가져온 우물 틀.

만주서 태어나 대학때 소설가 김송집서 하숙
‘별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 그 즈음 탄생
사색의 윤동주 문학관...주말 1600여명 ‘힐링’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